

# 북한의 2023년 대외부문 포스트 코로나 전환과 2024년 전망

김다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dwk129@kiep.go.kr

## I. 머리말

전 세계 많은 국가는 2022년에 국경 간 물적·인적 이동 및 대내 통제정책을 정상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갔다. 북한 또한 2022년 8월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면면을 보면 2022년의 북한은 포스트 코로나로 완전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북중, 북러 간 육로무역을 재개하며 무역이 증가하였지만 북중무역의 규모는 2019년의 37% 수준으로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주북 대사관도 대부분 철수하였으며, 해외에 파견되어 있던 북한 주민이 수년째 귀국하지 못하는 등 인적교류는 여전히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무역이 재개되면서 2022년 하반기 북한의 달러환율은 기존의 8,000원 수준으로 돌아왔으나, 코로나19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쌀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요 상품의 국내 수급이 오히려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2023년의 북한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북한의 대외 물적·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2023년 북한경제 상황을 정리하고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2024년 북한경제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지 등을 논의한다.

## II. 대외 물적교류: 무역

최근 북러 협력 강화 기조 속에 무역 또한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023년 러시아 세관이 북한에 옥수수, 밀가루 등을 약 7천톤 이상 수출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며,<sup>1)</sup> UN 대북제재위원회에는 2022년 12월부터 대북 정제유 수출도 재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sup>2)</sup> 그러나 2022년 이후 북러 간 무역은 공식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그 면면을 알기는 어렵다. 또한 북러 간 무역은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무역의 2%가량밖에 차지하지 않아 그 규모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공식무역 변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수입의 경우, 10월 현재까지 2023년 북한의 대중수입액은 15억 8,395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였다. 2019년 동기에 비해서는 23% 줄어든 수치로 기존의 수입액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국경봉쇄로 감소하였던 무역의 상당 부분을 만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품목별로는 가죽·섬유·의류·잡화류가 4억 8,400만달러로 수입액이 가장 컸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 수준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가죽·섬유·의류·잡화류 수입액의 71%는 중간재, 25%는 소비재인데, 특히 소비재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93% 증가하여 2023년에는 인민소비품의 소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보복소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던 것파도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중간재 수입액도 300% 가까이 증가하여 북한의 섬유·의류·가공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회복되고 있는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화학제품의 수입액은 4억 3,867만달러로 두 번째로 컸다. 화학제품은 2021~22년 북한이 무역을 재개한 직후부터 수입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진 품목으로, 2019년 동기 화학제품 수입액의 90%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되어 화학제품 수입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가공식품료품 수입액이 3억 623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것이자, 2019년 동기의 78%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수입은

1) 『SPN서울평양뉴스』, 「러시아, 올해 북한에 밀가루 수출 약 6천톤…3개월간 약 2천톤 늘어」, 2023. 10. 14([https://www.spnews.co.kr/news/article\\_View.html?idno=71628P](https://www.spnews.co.kr/news/article_View.html?idno=71628P)).

2) 『자유아시아방송』, 「러, 대북 정제유 수출 재개…우크라전 무기 제공받은 대가 가능성」, 2023. 6. 12([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russia-06122023145517.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russia-06122023145517.html)).

1억 441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직전 수입에 비해서는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량(쌀, 옥수수, 밀, 밀가루, 보리, 감자, 대두) 수입량만을 따질 경우 2023년 1~10월 수입물량은 25만 4,89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25% 정도 적다. 그런데 2019년에는 식량 수입이 유난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9년을 기준으로 식량 수입의 회복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2010~19년의 연평균 식량수입량이 32만톤가량인데, 이를 단순 월할 계산하면 26만 6,667톤으로 2023년의 수입물량과 유사하다. 즉,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수입의 경우에도 북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평가된다.

〈표 1〉 북한의 대중수입액(1~10월 합계)

(단위: 만달러)

구분	수입액			2023 변화율	
	2019	2022	2023	전년 동기 대비	2019 동기 대비
농축수산물	20,321	4,745	10,441	120%	-49%
에너지광산물	3,438	1,031	2,102	104%	-39%
가공식품류	39,101	11,693	30,623	162%	-22%
가죽섬유의류잡화	59,275	10,923	48,400	343%	-18%
목재펠프	7,809	3,329	7,620	129%	-2%
시멘트도자유리	8,437	1,135	6,261	452%	-26%
화학제품	49,198	27,333	43,867	60%	-11%
금속제품	39	-	59		52%
기계전자기기	336	-	127		-62%
운송기기	37	-	0		-99%
기타	18,474	1,878	8,895	374%	-52%
합계	206,465	62,067	158,395	155%	-23%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3년 북한의 1~10월 대중수출액은 2억 3,074만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 2019년 동기에 비해서도 3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은 코로나19보다는 대북제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므로 2019년보다 높은 수출액을 달성하였다고 해서 북한의 수출이 대폭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1~10월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20억 1,392만 달러로 2023년 수출액은 이 시기의 11%에 불과하다.

여러 품목 중 가죽·섬유·의류·잡화의 수출액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23년 1~10월에 1억 4,297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9배, 2019년 동기에 비해서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대부분은 가발·가수염(HS 6704) 수출인데, 이는 코로나 이후 수출액이 급증한 품목으로 의류 임가공 무역이 제재로 차질을 빚으며 대체품목을 발굴한 것이며,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규모가 제재 이전의 임가공 무역을 대체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 외 에너지광산품도 4,637만달러로 여러 품목 중 상대적으로 많이 수출되었으며,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11%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65% 증가하였다. 텅스텐광과 전기에너지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다. 그 다음으로는 금속제품의 수출이 2,818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9년 동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북한 금속제품의 수출은 직접적인 제재 사항이 아님에도 2016년 동기의 금속제품 수출액에 비해서는 64% 감소한 수준이어서, 다른 요인으로 인해 북한산 금속제품의 수요가 줄었거나, 북한의 금속제품 생산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북한의 대중수출액(1~10월 합계)

(단위: 만달러)

구분	수출액			2023년 변화율	
	2019	2022	2023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동기 대비
농축수산물	93	2	0.3	-82%	-100%
에너지광산품	2,805	5,235	4,637	-11%	65%
가공식품료품	164	3	81	2891%	-50%
가죽섬유의류잡화	3,462	1,385	14,297	932%	313%
목재펄프	220	3	90	2735%	-59%
시멘트도자유리	524	573	613	7%	17%
화학제품	640	565	17	-97%	-97%
금속제품	2,805	2,143	2,818	31%	0%
기계전자기기	0.1	-	-	-	-100%
운송기기	0.01	50	65	29%	1225032%
기타	6,705	312	455	46%	-93%
합계	17,416	10,271	23,074	125%	32%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종합하면 북한의 대중무역은 그 규모에 있어 수입은 2019년 수준에 다소 못 미치나 근접하게, 수출은 2019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이 되었다. 코로나에 따른 무역 제한 조치의 해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여파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육로무역이 열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차량을 통한 무역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역 목적의 통제라기보다는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열차 중심의 무역이 관리가 더 용이하기 때문일 수 있다.

### III. 대외 인적교류

#### 1. 고위급 인사교류

북한은 물적교류와 달리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2022년까지도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 이후 철수하였던 각국의 주북 대사관은 2022년에도 여전히 복귀하지 못하였으며, 주북 중국 대사마저도 전임 리진진 대사의 후임자가 국경통제 조치로 부임하지 못해 장기간 공석으로 비어 있었다. 기존에는 북중 고위급 인사 간 활발한 왕래 및 인적교류가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2022년까지는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의 관영매체에 상호 기고를 하는 등 문서외교로 이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북중 간 고위급 대면 인사교류가 재개되었다. 2023년 3월에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가 장기간 공석 끝에 북한에 부임하며 신호탄을 알렸다. 7월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는 북한의 초청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방북하여 코로나 이후 최초로 대규모 해외 인사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뒤이어 9.9절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75주년 기념행사에도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방북하였다. 북한 또한 9~10월 중국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며 화답하였다. 북중 고위급 인사 간 교류에 따른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고위급 인적교류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경 간 인적교류 재개 의지와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북러 간에는 보다 본격적인 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sup>3)</sup> 2022년 북러 간에는 대면 교류는 없었지만 러-우 전쟁을 계기로 양국이 국제회의에서 상호를 지지하고 나진-하산 철도운송,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재건협력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등 양국 간 관계가 긴밀해졌다. 2023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보다 본격화되고 확장되었다. 7월 전승절 기념행사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였으며,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뒤이어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총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그 전후로 김정은 위원장은 하바롭스크 전투기 공장, 크네비치 군 비행장,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등을 방문하여 주로 우주·군

3) 북러 간 인사교류 및 협력에 관해서는 민지영·김경민(2023) 참고.

사 분야에 방점을 둔 행보를 하였다. 그러나 동행한 양측 대표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외에도 산업통상, 건설, 극동지역, 천연자원, 교통 등 다양한 경제분야 인사가 포함되어 북중 간 회담이 군사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답방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11월에는 북러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위해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덕훈 내각총리와 면담했으며, 경공업 제품전시회 등을 방문하였다. 12월에도 연해주 주지사 등 연해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관광, 농업 등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방문의 세부 내용과 합의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러 정상회담 직후 연해주 주지사가 관광, 농업, 건설 분야의 협력사업 연내 추진을 기대하며 향후 관련 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sup>4)</sup> 북러 고위급 인사 간의 연이은 인적교류는 근시일 내에 북러 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위급 인사교류에 있어 2023년 북한은 2022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인사교류를 재개하는 수준이지만, 러시아와는 지정학적 배경 및 군사부문에서의 이해관계 일치에 따라 협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 북한이 물적교류를 넘어 인적교류를 재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2023년의 고위급 인사 간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적교류에 있어 대표적인 것이 해외 파견 노동자 및 관광인데, 아직 두 가지 모두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관련된 논의가 2023년부터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

## 2. 해외 파견 노동자 및 관광

러시아로의 노동자 파견에 관한 조짐은 2022년부터 관찰되었다. 북한이 도네츠크, 루한스크 독립을 인정하고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해당 지역의 재건에 북한 노동자가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주러 루한스크 대사가 주러 북한 대사와 북한 노동자의 재건사업 투입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sup>5)</sup>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제재 위반사항이므로 현재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는 대부분 노동비자가 아니라 학생비자,

4) 『경향신문』,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늘어날까…북러 농업, 건설 공동 프로젝트 진행」, 2023. 9. 14.  
(<https://m.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309141659001#c2b>)

5) 『자유아시아방송』, 「북, 제재 무시하고 도네츠크에 이어 루한스크에도 노동자 파견 추진」, 2022. 8. 1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workers-08122022142913.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workers-08122022142913.html))

여행비자 등 다른 형태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관광, 학업, 사업, 기타 목적 등으로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수는 4,448명으로 집계되었는데,<sup>6)</sup> 관광·학생비자 발급 건수가 제재 이후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 대다수는 해외 파견 노동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23년 북러 간에는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2월에는 러시아가 관광비자 간소화 대상국에 북한을 추가하면서 북한주민은 6개월까지 러시아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7월에는 북한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제도를 재개하였다.<sup>7)</sup>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고 북한은 제재를 회피해 외화를 벌고자 하는 상황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러시아로의 북한 노동자 파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3년 4월 북한이 약 450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러시아에 신규 파견하였다는 보도도 있다.<sup>8)</sup> 북한은 2023년 8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송환을 허용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체류연장 구실이 사라졌음에도 파견 노동자의 귀환으로 끝나지 않고 신규 파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해 비자발급을 원활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23년 중국으로도 약 350명 규모의 신규 노동자가 파견되는 등 제재를 회피하여 일정 규모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북한이 포스트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북중 간 경제협력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중국의 경기 둔화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중국 측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준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적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의 해외 파견 노동자가 대폭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광의 경우 UN 제재 사항이 아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과의 관광 재개에 대한 공식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 2022년 12월부터 북러 간 관광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초 북한주민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을 간소화하였다. 연해주 주지사도 북한과 관광분야를 포함한 협력의 연내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존의 북한 관광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협력은 중국에서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중국 여행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북한 관광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sup>9)</sup>

6) 안재도·이상근,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에 따른 문체점 및 대응방안」, 『INSS 전략보고』, No.232, 2023.

7) 민지영·김경민,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6, No.38, 2023.

8) 『Daily NK』, 「북, 러시아에 신규 노동 인력 파견…대북제재 구멍 커진다」, 2023. 4. 28(<https://www.dailynk.com/20230428-1/>).

9) 『MBC News』, 「북·중 '경제 협력' 논의…중국어 평양 여행 상품 판매 시작」, 2023. 5. 12.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2981\\_36133.html](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2981_36133.html))

또한 9월에는 주북 중국 대사가 북한 관광총국장을 면담해 인적교류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2024년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관광교류협력 심화의 뜻을 밝혔다.<sup>10)</sup>

북한은 대내적으로도 2023년 8월 관광법을 제정하는 등 관광 확대를 대비한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였다. 해당 법에서는 국내 및 국제 관광 활성화, 관광객의 편의 보장, 생태환경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관광법 채택에 따른 후속회의도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삼지연지구와 백두산이 위치한 양강도 도당은 관광법 채택의 후속 사업으로 관광부문 일꾼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sup>11)</sup> 대내외적으로 관광협력 확대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2024년에는 관광협력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IV. 평가 및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은 두 가지를 포함한다. 먼저 코로나 시기에 이루어진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더하여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첫째, 비정상화의 정상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2023년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하였고 수입 역시 2019년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2022년까지 소극적이었던 인적교류도 2023년에는 재개의 조짐이 뚜렷하였다. 중국과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관광협력, 인사교류 등을 재개하는 과정에 있으며 러시아와는 기존 수준을 뛰어넘어 대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둔화가 관찰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요소와 결합되어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군사, 경제 분야에서 북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북한의 적응 전략은 2023년에 일정한 성과를 냈으며 2024년에는 관광사업 재개, 군사협력 강화 등 보다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4년 대외분야에 있어 북한의 주요 과제는 무역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외화획득 경로를 창출하고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것, 중국·러시아와 관광협력을 재개하고 그 규모를

10) 『SPN서울평양뉴스』, 「주북 中대사, 北 관광총국장 면담... "인적교류 정상화 기대"」, 2023. 9. 24.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46>)

11) 『Daily NK』, 「양강도당, 백두산 끼고 있는 삼지연시 관광사업 추진 논의」, 2023. 10. 27(<https://www.dailynk.com/20231027-3/>).

확대하는 것, 우주·군사 분야에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어 북한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중국은 북중러 삼각연대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 러-우 전쟁이 2024년 중 종결될 경우 북러 간 협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북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대외분야 활동은 노동자 해외 파견, 암호화폐 탈취, 밀무역 등 불법적 활동을 포함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민지영·김경민,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 6, No. 38, 2023.
- 안제도·이상근,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INSS 전략보고』, No. 232, 2023.
- 『경향신문』,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늘어날까... 북러 농업, 건설 공동 프로젝트 진행」, 2023. 9. 14(<https://m.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309141659001#c2b>).
- 『SPN서울평양뉴스』, 「러시아, 올해 북한에 밀가루 수출 약 6천톤...3개월간 약 2천톤 늘어」, 2023. 10. 14(<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28P>).
- 『자유아시아방송』, 「러, 대북 정제유 수출 재개...우크라이나 무기 제공받은 대가 가능성」, 2023. 6. 12([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russia-06122023145517.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russia-06122023145517.html)).
- 『자유아시아방송』, 「북, 제재 무시하고 도네츠크에 이어 루한스크에도 노동자 파견 추진」, 2022. 8. 1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workers-08122022142913.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workers-08122022142913.html)).
- 『Daily NK』, 「북, 러시아에 신규 노동 인력 파견...대북제재 구멍 커지나」, 2023. 4. 28 (<https://www.dailynk.com/20230428-1/>).
- 『MBC News』, 「북·중 ‘경제 협력’ 논의...중국서 평양 여행 상품 판매 시작」, 2023. 5. 12([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2981\\_36133.html](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2981_36133.html)).
- 『SPN서울평양뉴스』, 「주북 中대사, 北 관광총국장 면담...“인적교류 정상화 기대”」, 2023. 9. 24(<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46>).
- 『Daily NK』, 「양강도당, 백두산 끼고 있는 삼지연시 관광사업 추진 논의」, 2023. 10. 27 (<https://www.dailynk.com/20231027-3/>).

<웹사이트>

중국해관통계(<http://stats.customs.gov.cn/indexEn>, 접속일: 2023. 12. 10).